

# “꾸준히 분산투자해 목돈 만들어요” 한국투자증권 ‘Start Up 적립식플랜’ 브랜드 론칭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스타트업(Start Up) 적립식 플랜'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브랜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스타트업) 기업처럼 적은 돈으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콘셉트다.

한국투자증권은 적립식 투자의 기본인 장기투자자와 분산투자 원칙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관리할 계획이다.

적립식 투자는 2000년대 초반 대표적인 자산증식 상품으로 인기를 끌다가 주춤해진 상태다. 많은 적립식 투자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손실 발생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특정 지역 쏠림 투자로 시장 충격 발생 시 취약점이 드러난 데다가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적립식 펀드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부터 적립식 투자에 대해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기투자, 분산투자,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적립식은 장기투자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이 지속 상승할 경우 거치식이 적립식 대비 유리하지만 긴 투자 기간 중 상승장만 골라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을 자제하고 꾸준한 불입으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 성과가 양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단품에만 투자하는 쏠림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변동성 노출로 인해 단기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분산 투자해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워 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글로벌 분산형 상품에 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조언한다.

이윽고 자산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리밸런싱을 통한 성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새 브랜드 전략 반영 적립식 상품 3종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새 브랜드 론칭에 맞춰 'DB Start Up 글로벌4차산업 EMP펀드' 'KB Start Up 액티브아시아 EMP펀드' '한국투자 StartUp-G2리서치캡' 등 적립식 상품 3개를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들 상품은 적립식 투자 특성에 맞게 장기 성장성이 높은 유망 산업 및 국가에 분산투자한다.

'DB Start Up 글로벌 4차산업 EMP펀드'에서 EMP는 ETF Managed



Portfolio의 약자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ETF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개별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대비 낮은 비용과 분산 효과가 뛰어나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투자기회에 집중해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응용 기술 부문 ETF와 반도체, 통신, 2차 전지 등 인프라 부문 ETF로 나눠서 투자한다.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인프라 부문 ETF의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강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이 높은 응용 기술 부문 ETF의 투자비중을 늘린다.

10개 이상의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해 특정 ETF에 대한 투자비중 편중을 방지하고 로보틱스,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해 특정 섹터에 대한 자비중 편중도 방지한다.

'KB Start Up 액티브아시아 EMP펀드'는 기업 이익 호조가 지속되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및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 전략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인도, 베트남 및 한국 등의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달성하고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흥 아시아 지역을 위성 투자 국가로 활용한다.

'한국투자StartUp-G2리서치캡'은 전 세계 GDP와 금융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G2(미국, 중국) 리딩 기업에 투자한다. G2의 장기투자 유망 우량종목을 발굴해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여 G2 증시 및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투자 기간 분산을 통해 보완한다.

문성필 상품전략본부장은 "적립 기간이 길수록 투자 시점의 영향은 적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①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내려면  
알맞은 온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금융에 깊이를 더하는 일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의 바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